표충사 호국박물관 재개관

8월 15일 재개장기념 법회 봉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휴관했던 표충사 호국박물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호국성지 표충사의 역사와 사명대사 관련 유물을 간직하고 있는 표충사 호국박물관은 노후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지난 1월 휴관했다.

표충사(주지 진각)는 효과적인 유물 보존과 최적의 전시 환경 조성을 위해 6월부터 내부시설 보수 공사를 시작했다. 8월 초에 공사를 마친 표충사는 8월 15일 호국박물관 앞마당에서 '표충사 호국박물관 상설전 재개장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박물관을 다시 열었다.

기념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테이프 커팅 △전시 안내 순으로 진행됐으며, 통도사 前 주지 원산 스님, 통도사 총무국장 종현 스님,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 표충사 호국박물관 부관장 여서 스님을 비롯해 이병희 경남도의원, 유석영 표충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통도사 前 주지 원산 스님은 축사에서 "표충사 성보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임진왜란 당시 적진을 찾아가 '이 나라의 보물은 바로 일본 장수의 목'이라고 말했던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희 경남도의원은 "표충사 호국박물관에는 밀양에서 유일한 국보가 전시되어 있으며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표공간이다"며 "앞으로도 밀양을 찾는 시민에게 호국의 얼을 알려주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6월부터 내부시설 보수공사 시작
"사명대사 호국정신 만나는 공간"
기념전서 아미타구품도 최초공개



표충사는 8월 15일 경내 박물관 앞마당에서 '표충사 호국박물관 상설전 재개장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진각 스님은 "표충사 호국박물관은 국보를 비롯해 중요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로 인해 유물 훼손 위기가 있었다. 반드시 보수가 필요한 공간이었다"며 "재개관을 통해 시민들에게 중요 유물을 선보이고 아름다운 불교문화 뿐 아니라 사명대사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표충사 호국박물관은 1992년에 신축됐다. 2002년 상설전시실을 개관하고 국보 제75호 청동은입사향완과 국가민속문화재 제29호 사명대사 금란가사와 장삼, 제1944호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유물 등 1050점에 이르는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시해 왔다. 그러나 박물관 건물의 노후와 낙후된 전시환경으로 문화재 훼손 문제가 대두됐고 재정비를 위해 휴관했다.

올해 3월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으로부터 2021년 문화재 다량 소장처 보존관리 지원사업으로 지정돼 전시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됐다. 표충사 호국박물관은 먼저 유물 보존을 위해 내부 방수 공사와 방습 장치를 구비했으며 전시 내용을 재구성해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한편, 표충사는 호국박물관 상설전 재개관을 기념하며 '義忠, 마음은 표현해야 알 수 있다' 전시회를 마련하고 경남도 유형문화재 아미타구품도를 공개했다. 아미타구품도는 최근 보존처리를 마쳤으며 대중에게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유물이다. 아미타구품도는 〈아미타경〉을 바탕으로 극락정토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해 둔 1880년 조선 후기 작품이다. 그 외 표충사의 역사를 비롯해 성보,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유물을 함께 볼 수 있다. 특히 사명대사의 가사고리, 교지, 봉별사명대사현판 등을 직접 관람할 수 있다. 055)352-1150

부산불교聯, 장안사 폐기물매립장 건립반대

8월 12일 성명서 발표, "폐기물매립장 허가 불허"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8월 12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장군 장안사 인근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립 추진을 반대하는 '천년고찰 장안사 인근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립지 허가 심사일인 8월 25일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서에서 "환경파괴로 시민의 건강과 수행환경을 훼손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며 "사업계획 허가시 200만 부산 불자를 대신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재형 부산불교연합회 사무국장은 성명서를 통해 "환경파괴는 생존의 위협이다"며 "6만 평에 이르는 폐기물 매립장은 혐오시설이다. 기장군은 현재 원전 밀집구역이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사무국장은 "산업폐기물매립장 부지는 천년고찰 장안사와 불과 1.5km거리에 위치했고 식수원 발원지다. 또 치유의 숲을 조성 중인 대운산과 울산 수목원이 인접한 구역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8월 12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천년고찰 장안사 인근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기장군에 건립을 추진 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장 부지는 보전녹지구역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 사업 추진 검토를 받고 있으며 규모는 6만 평이다. 심한 악취 우려 및 자연파괴 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 국장은 "악취가 나는 장안사 계곡은 악몽이 될 것이다"며 "기장군 산업 폐기물 매립 단지는 공익을 가장한 사업자의 사익을 위해 논의 중인 것이다. 부산불교연합회와 200만 불자는 신청허가를 반려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코로나 시대 '경전 공부로 성장'

부산불교교육대, 하반기 신입생 모집
불교엘리트 1기 과정 등 심화과정, 기초강좌 개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이 코로나 시대를 위한 경전 심화과정을 개설하고 2021년 하반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경전 심화과정에서는 불교엘리트 과정 1기를 모집한다. 불교엘리트 과정은 〈화엄경〉과 〈금강경〉을 공부하는 6개월 과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를 사는 대중을 경전 공부로 이끌기 위해 개설됐다. 평소 쉽게 접근 할 수 없었던 경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경전 공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불교엘리트 과정은 올해 3월에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화엄경〉 강의로 시작됐다. 130여 명의 수강생들이 신청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고 그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하반기에 〈금강경〉을 주제로 개설됐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하반기 교육과정으로 불교엘리트 과정 1기를 모집한다. 사진은 2018년 졸업식 당시 모습.

강의는 前 해인사 강주 보윤 스님이 담당한다. 강의는 9월 9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6개월간 이어지며 대면과 비대면 유튜브 강좌도 병행한다.

신규탁 교수의 〈벽암록〉과 〈화엄경〉 과정도 유튜브 강좌로 제공된다. 〈벽암록〉은 3개월 동안 월, 수요일 각 30분씩 영상강의로 진행되며 〈화엄경〉은 6개월 동안 매주 화, 금요일 각 60분간 진행된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이외 하반기 강좌로 6개월 과정의 기초교리학을 매주 화요일 7시 진행한다. 강의는 학장 범혜 스님이 담당한다. 불교문화포교사와 불교문화전문지도사 자격증 취득과정인 불교문화학과 수업은 6개월 간 매주 수, 금요일 7시에 진행되며 강의는 김춘식 교수가 담당한다. 합창단, 수화반, 다도반, 대금반, 사물놀이단 등 문화 힐링 과정도 이어질 예정이다.

부산불교교육대학 하반기 입학식은 9월 6일 오후 7시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개강 특강으로 '신규탁 교수의 벽암록'이 진행된다.

학장 범혜 스님은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불자들이 성숙하고 경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이면 부산불교교육대학이 40주년을 맞는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부산불교 재가교육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산실이었다.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사회봉사 및 실천을 통해 회향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주교도소 불교위, 얼음빙과 전달

8월 4일 전주교도소 앞서 전달식



전주교도소 불교위원회는 8월 4일 전주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얼음빙과 2800개를 전달했다.

전주교도소 불교위원회(위원장 현진. 천지사 주지)는 8월 4일 전주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얼음빙과 2800개를 전달했다.

이번 얼음빙과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전주교도소 내 확진자 발생으로 교도소 봉쇄조치가 내려진 어려움을 감안해 불교위원회가 마련했다. 얼음빙과 나눔에는 이화불교사와 군산 염불사 혜운 스님이 후원했다.

얼음빙과 전달은 교도소 내 확진자 발생으로 모든 출입이 제한되고 있어 정문에서 전달식만 진행됐다.

블교위원장 현진 스님은 "수용자들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확진자 발생으로 문밖출입이 제한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도소교정협의회(회장 진성)와 불교위원회는 여름철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정기적으로 얼음생수와 얼음 빙과를 전달해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비대면 통신교육 3개월과정(제63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 할 수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비대면 녹음강의 통신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교육기간 : 2021년 9월 6일부터 3개월
・교육방법 : ① 의식강의 내용을 녹음하여 CD로 보급합니다.
② 강의 내용과 관련한 교재 및 교육자료를 배부합니다.
③ 교육관련 궁금한 내용은 전화 질의 상담으로 지도합니다.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메일, 팩스, 문자 접수 가능)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 될 수 있는 의식방법으로 집중 지도함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net FAX : 02)737-5305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볼에 부치고 염불하는
탑클라스 무선 마이크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80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80만원